

#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 촉구

### 김승환 교육감, “고용노동부가 처분 취소하면 돼... 시국선언 교사 징계·고발도 취소해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것을 새정부에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2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며 정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원고패소했다”면서 “현 단계에서 가장 빠른 해결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렸던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면 된다. 국제법상으로도 법외노조 처분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의 본질은 노동보호인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노동부는 노동조합 해부로 전락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처리도 법 전문가들이 온갖 법리를 들이대며 안된다고 했지만 새 정부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 이 문제도 현 장관이 결자해지 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달의 으뜸 도정상 시상식** 전북도는 23일 '혁신시대의 날'을 통해 지난 4월 업무성과가 우수한 3개 부서를 선정하고, '이달의 으뜸도정상'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달의 으뜸도정상'은 총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내부 선정 절차를 거쳐 최우수 부서에는 새만금수질개선포기, 우수부서에는 사회복지과와 탄소산업과가 각각 선정되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와 고발 철회도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교사 시국선언이 있었고 그 중 일부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요구와 고발이 이뤄졌다”면서 “교사들을 고발했던 교육부에서 현 장관이 나가기 전에 고발 취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 정부 들어 여러 분야에서 개혁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학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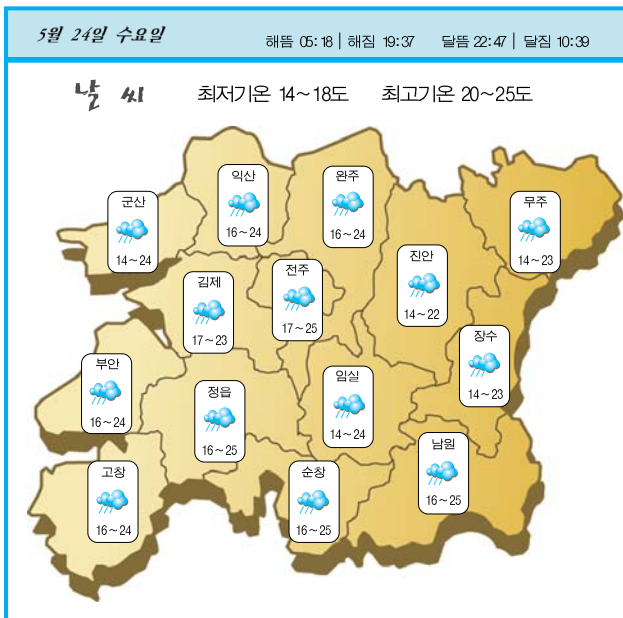
서는 아직까지는 조용하다면서 대학 개혁에 대해서도 철저히 손을 대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우리나라 대학들은 그동안 철저한 학벌 기득권 세력을 형성, 유지, 강화시켜 왔다”면서 점수 및 점으로 출세하기 하고 특목고, 자사고 등에 특혜입학을 준 것 등을 비판했

다.

한편 김 교육감은 도내 정치권과 교육계가 함께 논의기구 등을 만들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 정책과 호응하고 우리 전북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시기 적절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해은기자



## 내년도 개교예정 신설학교 교명 공모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주현)은 2018학년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솔내초등학교 교명을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가칭)솔내초등학교는 일반 42학급, 특수 1학급 병설 유치원 3학급, 유치원 특수 1학급 등 총 47학급의 규모로 덕진구에코시티에 위치하고 있다.

신설학교 교명 공모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기간은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이다.

교명은 지역의 특색과 역사가 반영될 수 있는 이름, 부르기 쉽고 친근한 어감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이름, 타 교명과 중복되거나 혼동이 되지 않는 것을 기본방향

으로 하고 있으며 공모를 원하는 도민은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 www.tbje.kr](http://www.tbje.kr)) 공지사항에서 공모신청서를 내려 받아 우편 또는 인편,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공모기간을 통해 접수된 교명을 대상으로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명을 선정하며 선정된 교명은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팝업창팝업존란에 교명공모안내를 참고하거나 행정지원과 학생배치팀(270-6049)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해은기자

## ‘전주얼수’로 전주시 수돗물 신뢰도 상승

### U-20월드컵 기간, 경기장 내 수돗물 냉·온수 음수대 설치 무료 시범 운영

전주시가 FIFA U-20월드컵 등 공익 목적의 각종행사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수돗물 병입수 ‘전주얼수’가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얼수’는 용담댐 광역상수도 원수를 사용해 고산정수장에서 정수처리된 수돗물을 플라스틱 용기(PET병)에 담은 전주시 수돗물 병입수 브랜드이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전주에서 열리는 FIFA U-20 월드컵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대회기간 월드컵경기장 내 수돗물 냉·온수 음수대를 설치하고, 민고 마실 수 있는 병입 수돗물인 ‘전주얼수’를 무료로 시범할 수 있는 ‘전주얼수’ 쉼터를 운영하

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맑은물사업본부는 지난 19일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진행된 FIFA U-20 월드컵 전주개막 기념 전야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행사장에 병입 수돗물 ‘전주얼수’ 1만 병을 무료로 공급했다.

이처럼 전주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와 축제에 전주얼수가 공급되면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도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맑은물사업본부가 지난해 10월과 11월 시민 800여명을 대상으로 수돗물의 음용률을 조사한 결과, 56.4%가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전주얼수 출시 전인 1년 전보다 2.2%p 상승했다.

또한 맑은물사업본부가 전주얼수 출시 이후 홍보를 위해 수차례 실시해온 시민대상 전주얼수 시음회와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도 전주얼수의 맛이 정수기물과 시판되는 먹는샘물보다 좋다고 응답한 시민들이 더 많아 전주시 수돗물 맛의 우수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수돗물 병입수인 전주얼수를 생산·공급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주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열리는 각종 행사에 190개 수돗물용 식수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태풍 ‘치바’로 피해 입은 경주사에 피해 복구

위해 긴급 지원단을 파견하면서 전주얼수를 함께 보내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각종 행사장내 축제장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주얼수를 생산·공급할 계획이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관계자는 “청정 1급수인 용담호를 수원으로 한 전주시 수돗물은 공급과정과 수질상태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안전하고 맛도 좋다”며 “시민들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전주의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얼수 공급 및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얼수 이용을 원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에 신청하면 공급지침에 따라 협의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재난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맑은물사업본부 삼천기안장 생산현장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김민근기자

## 전북도 FFK전진대회... 275팀 290여명 출전

제40년차 전북도 FFK(영농학생)전진대회가 23일부터 오늘까지 전주생명과학고에서 열린다.

전북도교육청이 주최하고 FFK전라북도지부, 한국농업교육협회 전북지부가 주관하는 이 대회에는 총 4개 분야 20개 종목에 275팀 291명이 참여한다.

분야별로는 △전공경진 7종목 149팀 149명 △과제이수발표 6종목 18팀 28명 △실무능력경진 6종목 65팀 71명 △FFK골든벨 1종목 43팀 43명 FFK기타 특기발표 13팀이 나선다.

첫날인 23일 오전 9시 30분 대회식을 시작으로 오후 9시까지 대부분의 경진분야와 FFK예제제를 치르고 2일차인 오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현장테마체험학습을 한 뒤 시상식과 폐회식을 갖는다.

이번 전진대회에서 1등급(금상) 22팀과 2등급(은상) 33팀은 각각 전라북도교육감상이, 3등급(동상) 및 특기발표 입상자 61팀에는 (사)한국농업교육협회 전북지부장상이 주어진다.

/정해은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

2017 MUJU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2017 WTF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MUJU

2017. 6.24.(토)-30.(금)  
전북 무주 태권도원

세계는 무주 태권도원으로  
태권으로 하나되는 지구촌  
One World, One Taekwondo at Taekwondown

KPNP, KFA, Kwangju Bank, JB Woori Capital, ASIANA AIRLINES